

아라



언니 친구가 비트 다 정리한대

1년째 바닥이라고 ㅠ

오후 8:30

주아



아 진짜?

근데 그거 강사님이 강의에서 딱 짚으셨어

아라



엥 비트를?

주아



응 비트가 **2026년 가장 먼저 봐야 할 지표**래

아라



근데 비트는 코인이잖아?

왜 단기 자금이랑 연결돼?

주아



결이 딱 갈려서 그래

**비트 = 단기 자금 시장** 풍향계

**금 = 중장기 자금 시장** 풍향계

아라



어 그래서 둘이 따로 움직이는구나



주아

응 최근에 금은 계속 신고가인데

비트만 **30% 토막** 나고 못 올라온 게 그 증거

오후 8:32

아라



헐 진짜로?



주아

응 단기 자금이 마르면 비트가 가장 먼저 신호 줘

주식·금보다도 빨라

아라



근데 단기 자금이 왜 말라?



주아

트럼프가 단기채만 폭탄 뽑았거든

아라



주아

트럼프가 단기채만 폭탄 뽑았거든

왜 굳이 단기만 발행해?



주아

장기채를 많이 풀면 수요가 부족해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거든

그럼 기업들이 돈 빌리기 더 어려워져

근데 트럼프는 기업 투자 살려야 중간선거에서 이기니까

재정 준칙(장기 80% / 단기 20%)을 깨버렸어

**단기 55% / 장기 45%**로 발표

아라



와 그게 가능해?



주아

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그냥 깬어 ㅋㅋ

일부 분석은 실제 단기 비중이 **80%**까지 갔다고도 해

아라



그래서 단기 시장이 어떻게 됐어?



주아

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였지

정부가 단기채를 폭탄으로 뽑으니까

단기 자금이 거기로 다 빨려가

다른 단기 자산(비트 같은)에 돈이 안 가

그래서 **비트 -30%**, 못 올라옴

아라



헐 그럼 다음은 주식이야?



주아

강사님 말로는 단기 자금 마름이 계속되면 다음 타격은  
주식이라

그래서 **비트가 선행 지표** — 비트가 살아나면 주식도  
살아남

아라



그럼 트럼프는 가만히 있어?



주아

ㄴㄴ 두 번째 수단도 같이 가동 중

**관세 폭탄 + 동맹국 강제 투자**

관세로 부족한 세수 메우려는데

사실 관세 수입은 전체 세수 부족분의 **10분의 1**도 못 메워

아라



엥 그럼 무슨 의미야



주아

그래서 한국·일본·EU에 미국 내 투자하라고 강요해

한국·일본 다 뒤집어진 거 봤지?

아라



맞아 뉴스에서 봤어



주아

근데 다 **MOU(양해각서)야 — 법적 구속력 없음**

그래서 동맹국들은 시간 끌기 전략

트럼프 임기 2년 남았으니 버티면 끝

아라



근데 한국은 영향 없어?



주아

있다마다 ㅋㅋ

한국도 미국이랑 똑같은 함정에 빠졌었어

2022년 1월부터 한국 M2가 **21%** 늘었거든

아라



헐 21%면 적은 거 아니지?



주아

응 엄청 큰 거지

근데 같은 기간 강남 아파트 공급은 **2%**만 늘었어

오후 8:39

아라



와 21% vs 2%면...



주아

강남 친구 진작 사냈는데 또 2배 됐다고 그러지?

아라



맞아 ㅋㅋㅋ 짜증나ㅠ



주아

그게 정확히 그 이유야

강사님이 그러시는데 한국은행이 100원 풀면 시중에 **1,400원**이 돌게 돼

아라



엥 어떻게?

주아



통화승수라는 게 있어 — 은행이 100원 받으면 90원 대출하고

그 90원이 다시 은행 들어와서 81원 대출되고...

이게 무한 반복돼서 100원이 1,400원이 되는 거

아라



와 그래서 21% 풀었으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풀린 셈?

주아



정확해 ㅋ

그러니까 강남이 폭등할 수밖에

아라



그래도 안 되면?

주아



세 번째 수단이 결정타야

**2025년 12월** — 파월이 단기채 매입 시작

아라



엥 그거 그냥 양적완화 아냐?



주아

ㅋㅋ 정확해

근데 파월이 "이건 단기채 매입일 뿐 QE 아니다"라고 선  
그었어

셀프 대출 ver.2지

정부가 단기채 발행하고 연준이 그걸 돈 찍어 사주는 셀프  
거래

본질은 양적완화

**12월부터 4개월에 200조** 풀었대

아라



와 그게 다 단기채 사주는 데 들어간 거?



주아

응 그리고 이 "**2025년 12월**"이 진짜 중요해

12~18개월 시차의 출발점이거든

아라



12~18개월 시차?



주아

응 돈을 풀면 인플레가 바로 안 와

**라면 끓이는데 불 끄고 1년 뒤에 김 올라오는** 셈

아라



ㅋㅋㅋ 비유 뭐야

주아



근데 진짜 그래

강사님이 그러시는데 인플레는 **맥박처럼 뛰다**

올랐다 내렸다 지그재그

그러다 갑자기 폭발

아라



그럼 2025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...

주아



**2027년 후반**이 인플레 역습 시점이야

그때까지는 자산 호황

근데 그 후가 문제 ㄷㄷ

아라



그게 진짜 그렇게 돼?

주아



역사가 이미 증명했어

1972년에 거의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

잠깐 분석가 한 분 모셔올게 ↓

EXPERT GUEST

**김재현**

거시경제 애널리스트

"1972년 닉슨 재선을 앞두고 아서 번즈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9%에서 3%대로 대폭 인하했습니다. S&P 500은 1971년 +14.3%, 1972년 +19% 폭등했고, 닉슨은 선거인단 520대 17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. 미국인들은 '경제가 좋아졌다'고 믿었습니다. 2026년 트럼프의 중간선거 전략과 거의 똑같은 그림입니다."

아라



와 진짜 똑같네

주아



트럼프가 닉슨 책 본 듯ㅋㅋ

오후 8:46

아라



근데 그래서? 닉슨이 이긴 다음엔?

주아



그게 진짜 충격이야

12~18개월 시차가 어김없이 왔거든

1972년 인플레 **3.2%** → 1973년 **8.7%** → 1974년 **12.3%**

그리고 S&P가...

닉슨 호황 18개월 뒤 S&P

**-26%**

1972년 +19% 폭등 → 1974년 -26% 폭락. 인플레 12.3%가 모든 걸 끝장냈습니다.

아라



와 미쳤다... -26%???

1

주아



응 1973년 -15% / 1974년 -26%

호황 후 폭락. 평행이론.

오후 8:49

아라



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갈까?

주아



딱 한 가지 다른 게 있긴 해

1972년엔 가장 빠른 매체가 **TV**였거든

근데 지금은 정보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

그래서 시장 대응 속도가 훨씬 빨라

아라



그럼 인플레 역습도 더 빨리 와?

주아

응 그게 강사님이 강조하시는 포인트

그래서 강사님이 2026년 **3가지 시나리오**를 정리하셨어

①번 — 고용 악화로 불황 → 연준 명분 → 돈 풀고 → 자산 반등

②번 — **3% 마일드 인플레 + 견조한 미국 경제** (강사님 1순위)

③번 — 상반기 조기 인플레 → 긴축 → 자산 하락

아라

강사님은 ②번이 가장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거지?

주아

응 근데 PCE 3.5% 도달하면서 ③번 가능성도 올라간 상태

아라

근데 트럼프만 그래?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게 있어?

주아

에르도안 사례가 진짜 데칼코마니야

**"금리 인하하면 물가 내린다"** 기적의 논리 폼터든

아라

응 그게 말이 돼?



주아

안 되지 ㅋㅋ

근데 에르도안은 독재 권력으로 밀어붙였어

결과는 — M2 **30배** / 인플레 **85%** / 리라화 **24분의 1**  
토막

**1,300원 환율이 3만 3천 원**이 된 셈

아라



헐 그건 진짜 망한 거 아냐



주아

근데 흥미로운 건...

에르도안도 결국 두 손 들었어

2023년 새 경제팀 임명하고 정통 정책으로 노선 전환

트럼프가 그 결말 알고도 같은 길 가는 게 함정 ㄷㄷ

아라



근데 미국은 튀르키예보다 강하잖아



주아

경제 규모는 그렇지

근데 **인플레만큼은 미국이 더 취약해**

아라



엥 왜?

주아



튀르키예는 망해도 관광이라도 되거든

리라 폭락하면 외국인 관광객·수출 늘어 — 일부 완충

근데 미국은 **달러 패권**이 무너지면 끝

달러 가치 떨어지면 각국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빼고  
금으로 갈아탐

이미 **달러 비중 57%까지 떨어졌어** (1994년 이래 최저)

그래서 미국은 인플레 조짐만 보여도 즉각 긴축할 수밖에  
없어

아라



근데 우리 월급은 안 오르는데 자산만 오르는 이유가 뭐야?

주아



그게 **캔틸런 효과**야

18세기 캔틸런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데

**새 돈은 자산가가 먼저 받고 서민이 가장 나중에 받아**

오후 8:58

아라



왜?



주아

은행이 부유층한테 VIP 대우해주거든 — 저금리 막대한 대출

그 돈으로 자산 사서 가격 올림

그 후에야 우리에게 대출 기회 와 — 이미 비싸진 가격

그래서 **시차의 노예가 되어 꼭짓점에서 매수 → 폭락 시 자산 잃음**

아라



와 진짜 짜증나 ㅋㅋ



주아

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

1990년대 클린턴 때 미국 하위 90%가 전체 자산의 40% 보유했고

상위 1%는 22%였어 — 비교적 고르게 분배

근데 **2015년에 상위 1%가 하위 90%를 넘었어**

아라



헐 ㄷㄷ



주아

그게 192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야

오후 9:01

아라



1927년? 무슨 일 있었는데?



주아

1928년까지 호황 → 1929년 가을 **대공황**

아라



그럼 지금 미국 인플레이는 어떤데?



주아

이미 위험 지대 진입

강사님 경계 수위가 **3.5%** / 위험 수위가 **4%**인데

**PCE가 2026년 3월에 3.5% 도달**했어

직전 2월엔 2.8%였는데 한 달 만에 급등

아라



와 벌써?



주아

라떼로 치면 7,000원 → 7,250원이 PCE +3.5%

체감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

**4% 돌파하면 앞자리가 바뀌어** — 심리적 충격 ↑

그때부터는 트럼프 임명 의장이라도 긴축 강제

아라



근데 인플레가 그렇게 단계가 있어?

주아



응 강사님이 4단계로 나누셨어

**모더레이트 (2~6%)** —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구간

**하이 (10% ↑)** — 1970년대 미국이 3번 / 주로 개도국

**겔로핑 (20~50%)** — 빠르게 치닫는 인플레

**하이퍼 (50% ↑)** — 튀르키예·아르헨티나 사례

아라



우린 지금 어디 있어?

주아



**모더레이트 안에서 위험 지대 진입 직전**

오후 9:04

아라



근데 우리는 평생 캔틸런한테 당하기만 해야 돼?

주아



ㄴ ㄴ 시차를 **역이용**할 수도 있어

대표 사례가 **삼성전자**

아라



삼성?



주아

응 삼성이 반도체 처음 들어갔을 때가 호황이 아니었어

오히려 미국·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줄도산하던 불황기

그 불황기에 들어가서 반도체 장비를 **엄청 싸게** 확보

그 이후로 시장 장악

아라



오 그렇게 한 거구나



주아

강사님이 그러시는데 다음은 **AI**래

엔비디아 칩 지금 너무 비싸서 못 사잖아

AI 거품 꺼지면 칩값 폭락할 거고

그때 들어가는 기업이 또 시장 장악할 거라고

아라



근데 우리 뭐 해야 돼?

비트만 보면 되는 거야?



주아

비트는 시작이고 — 강사님이 예의주시 신호 3가지 정리하셨어

딱 세 개만 기억하면 돼 ↓

2026년 한국 투자자 예의주시 신호 3가지

01 시차 카운트다운 인식

— 2025년 12월부터 12~18개월 시차 작동 중. 2026 호황 후 2027 인플레이 역습 시점 모니터링 (강의는 신중히 흐름에 올라타라고 권고).

02 비트코인 = 단기 유동성 바로미터

— 매월 관찰. 투자 여부 무관. 비트 살아나면 주식도 살아남 — 강의가 짙은 단기 자금 풍향계.

03 PCE 4% 트리거 모니터링

— 강사 경계 수위 3.5% 이미 도달. 4% 돌파 = 강의가 짙은 긴축 강제 신호 (트럼프 임명 의장도 강제).

아라



오 정리됐다

비트 매월 확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

주아



응 투자 안 해도 풍향계로 보면 돼

**시차의 노예가 되지 말고, 시차를 역이용**

오후 9:11

아라



고마워 언니 ❤️

주아



다음 강은 "부자만 가는 새 길, K자 디커플링"이래

다음 강 올라오면 또 풀어줄게

오후 9:12

박종훈의 지식한방 Part 1-3강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. 투자 권유가 아니라 강의 핵심 논지와 외부 자료 보강을 통해 더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한 요약입니다.